

학교탐방

공현진초등학교

“즐거움을 닦고 건강하게 생활하자”

‘내 자랑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학교 브랜드로 ... 2007년 개관 학교도서관 주민들에 개방

“바른 행동으로
즐거움을 닦고 건강
하게 생활하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에 위치한
공현진초등학교(교
장 이남선)는 전교
생 37명의 작은
시골학교다.

규모는 작지만, 동해안 해변이 보이는
전망이 아름다운 교정에서 미래에 대한 꿈
을 키우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공현진초교 이남선 교장은 지난 2009
년 부임 이후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불러
일으키는 충실한 교육을 위해 ‘내자랑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를 학교 브랜드로 설정
했다.

이를 위해 도서교육과 발표력 신장 등을
통해 정이 많은 학생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1942년 개교한 공현진초교는 올해까지
총 2,431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2007년 학교 도서관을 개관해 3,800



이남선 교장

권 이상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공현진초교
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학교 도서관
을 개방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08
년에는 학교 도서관내 English zone 설
치를 했다.

또 2009년에는 다목적실 선유관을 개
관해 이남선 교장이 직접 국화를 재배하여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조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교내전체 학급 롤브라인드를 교
체하고 각 교실에 50인치 LCD TV를 교
체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성교육 차원으로 인사 잘 하
기, ‘내 자랑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를 토
요일 수업일 1교시에 학년별로 학교 브랜
드를 실천하는데 힘쓰고 있다.

공현진초교는 학예회 발표, 도시체험,
야영활동, 도농교류학습활동 등을 운영하
고 있으며 6.25상기 극기훈련의 일환으로
걷기대회, 어린이날 기념 소체육대회를 운
영하고 있다.

또 가을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문집 발
간, 신문 발간, 학교특색교육 결과물 책자
발간등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현진초등학교 전경.

있다.

이남선 교장은 “전 직원이 다 함께 학부
모들의 관심과 도움속에 ‘행복한 학교’의
길을 가겠다”며 “아이들 하나하나 건강하
고 밝게 빛나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또 “아이들 하나하나의 변화에 관심 갖

지 않고 집단의 성과에 매어 있거나 교육
의 본질을 외면하면 따갑게 질책해 주길
바란다”며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되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 갔으면 한다”
고 했다.

박승근 기자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4>

고성팔경(高城八景)④ 화진포(花津浦) I

인문 환경에서 바라 본 동해안의 가장 큰 석호(潟湖)

화진포(花津浦)는 7번국도 상에 있으
며 간성 읍내에서 북쪽으로 약 18km
지점에 위치한다. 중앙의 지리적 거리는
북위 38° 28' 24"이고, 동위 128° 15'
40"이다. 동해안에 따라 분포하고 있는
석호(潟湖, lagoon) 중 가장 크고 대표
적인 것으로서 해안에는 사빈이 발달하
고 있어 피서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으
로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되었다.

행정구역으로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
읍 화포리와 원당리, 현내면 초도리와
죽정리 등 2개 읍면과 4개리에 걸쳐 있
다. 둘레는 16km, 면적은 2,387,843
km²이다. 담수량은 552만 톤으로 평균수
심이 1.92m(최고수심은 3.55m)로 내
호(內湖)와 외호(外湖)로 나뉘어져 있다.

화진포의 본래 지명은 열山湖, 花津浦
(花津湖), 抱津湖, 花潭 등으로 나타내며
현재 전승되는 화진포의 다른 이름인 열
산호는 열산(烈山)의 마을 지명에서 따왔
음을 알 수 있는데 열산현(烈山縣, 列山
縣)은 고려 때 명칭이다. 열산은 화진으
로 바꾼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
명유래를 보아 호수 주변에 피는 많은
꽃들과 관련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진포에 관련한 한시 중에는 1589
년(선조 22) 판결사를 거쳐 강원도 관찰
사를 지낸 구사맹(具思孟)의 한시가 『八
谷文集 2卷』에 가장 오래된 시로 남아있

다. 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함께 조각배 띄워 바닷가 나가
물안개 자욱한 화진 포구를 건너네
피리 소리 갈매기 꿈 흔들어 깨우니
놀란 암수 쌍쌍이 물 세상에 날아오르
네.

문헌상에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년)』과 『水城誌(1633)』은 그 유래를 전
하고 있는데, 관찰지리지 『신증동국여지
승람』 제45권 간성군편 열산 폐현(烈山
廢縣)을 보면 “고을 북쪽 35리에 있으며
원래는 승산현(僧山縣)인데 소물달(所物
達)이라고도 하였다. 신라 경덕왕 때 동
산(童山)으로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
현으로 삼았으며 고려 때에 지금 이름으
로 고치고 그대로 속하게 하였다. 별호
(別號)는 봉산(鳳山)이다.”라 하였다.

열산호가 생긴 홍수설화는 다음과 같
다. “열산현 동쪽 2리에 있다. 큰 호수가
있어 둘레가 수십 리인데 언덕과 골짜기
를 감싸고 걸쳐 있으니 여러 호수에 비
하여 제일 크다. 인간에상에서 전하여오
는 말이 옛날 큰물이 나서 열산 골짜기
를 휩쓸니 새 고을을 옮겨 산 기슭에 설
치하였다. 전에 고을은 물속에 잠겨있
는데 갠 날 파도가 조용하면 담장과 집 모
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사찬지리지 『수성지』 산천조(山川條)



해당화가 핀 화진포 전경.

에 의하면 “화진포,一名 열산호라고 한
다. 열산 동쪽 2리에 있으며, 둘레가 수
십리 북쪽의 호수 중 가장 큰 호수, 옛날
부터 전해오기를 열산현으로 있을 때 이
호수 뒤에서 대홍수가 범람했을 때에 이
호수가 생겨났다고 한다. 지금도 맑게
개인날 바람 없이 잔잔할 때 물속을 내
려다보면 담장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호수가 깊고 검게 보여 수심을 알 수 없
다. 겨울에도 얼지 않고 여름에는 흑 천
둥번개가 친다고 전해온다. 용이 이 호
수로 옮겨와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배를 호수 가운데로 끌어당겨 비바
람을 일으키는 까닭에, 사람이 감히 웃

을 함부로 벗지 못한다. 영동해변의 많
은 호수는 모두 땅속으로 해수가 이어져
있다. 홍수의 범람으로 호수가 형성되었
다는 설과 호수를 내려다보면 담장이 보
인다는 말과는 모순이다. 그래서 지금은
신빙성이 없고 다만 세상에 전해 내려오
는 말에 의할 뿐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김 광 섭

- 향토시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 논문 : <선유담의 고찰, 간성의
만경대와 누정 고찰>